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4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10월 13일

나. 발 의 자: 고찬양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3년 10월 16일

라. 상정일자: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3. 10. 24.)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고찬양 의원)

□ 제안이유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전부개정 및 시행됨(2022. 12. 8.)에 따라 개정된 사안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내 도서관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나.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수정(안 제4조)

다.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지원 범위 구체화(안 제6조)

라.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등 운영 전반 정비(안 제7조 ~ 제 12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의 의무화 및 회의 개최 일수 확대 등

마. 작은도서관 개관 및 휴관에 관한 구체적 명시(안 제15조)

바. 도서 대출 기간 연장 등 이용자 편의 개선(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도서관법」

나. 협조부서: 교육지원과

다. 입법예고(2023. 10. 16. ~ 2023. 10. 20.)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장석현)

가. 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작은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관내 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1조는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여 지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함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공공도서관”, “구립 작은도서관” 및 “사립 작은도서관” 등 정의를 보다 세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운영주체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음

- **안 제4조**는 「도서관법 시행령」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의거 도서관 설치 기준을 정비하여 작은 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설치기준 등)①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하고, 해마다 신규 자료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p>제4조(설치기준 등)①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이어야 할 것 2. 1,000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구비할 것

- **안 제6조**는 작은도서관이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의 지원 가능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도서관 자원봉사자 대상 필요한 직무교육의 실시 및 봉사단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 **안 제7조 ~ 12조**는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의무화 등 운영 기준을 정비하였고,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와의 구성 및 역할을 구분하였음

- **안 제15조**는 작은도서관 휴관일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운영자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으로 개관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p> <p>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휴관 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한다</p>	<p>제15조(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으로 개관 하되, <u>운영자가 각 도서관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운영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u></p> <p>②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휴관할 경우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도서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임시 휴관 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안 제17조**는 작은도서관 도서 대출 기간 연장(기존 7일 → 확대 14일) 등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률 증가를 위해 노력하였음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전부개정 및 시행됨(2022. 12. 8.)에 따라 개정된 사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문화 진흥을 도모하는 것으로,
-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을 삭제하는 등 기준을 정비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작은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도서관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작은도서관 진흥법」

-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도서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